

# 대학 홍보와 구성원 화합의 계기가 된다

이 선 희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기획처장



1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도처에서 음악이 과잉 공급되어 범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주말이나 휴일 오후에 무심코 TV를 켜면 현란한 조명 아래 국적 불명의 이상야릇한 의상을 걸친 가수들이 요란한 울동의 춤을 추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노래를 외쳐대고 있는 모습은 이제 하도 자주 봐서인지 낯설지도 않다.

어디 그뿐인가? 신문의 문화면을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연주회와 음악회를 제외하고라도 도처에 널려있는 노래방에서, 호텔 연회장에서, 리셉션 장에서 또는 운동장이나 결혼식장에서, 크고 작은 각종 모임의

뒤풀이 순서에서도 음악은 넘쳐흐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떤 분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지니고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우리 고유의 관습이니 조금도 놀랄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 분 말에 의하면, 우리 겨레는 예로부터 매우 낙천적이면서 또한 가무를 몹시 즐겨왔다고 한다. 그만큼 예술성이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이다. 『후한서』 위지동이전에 보면 부여에서는 “정월 제천엔 온 나라가 대대적인 집회를 갖고 연일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었다.”고 하며, 고구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제 몸을 청결히 하여 밤이 되면 남녀가 무리로 모여 창악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마한에서는 “무리지어 노래하고, 춤추며 술마시기를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다.”고 하며, 진한에서는 “풍속으로 노래와 춤을 즐기고 술을 마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옛날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노래와 춤으로 밤을 지새며 즐겼을 만큼 음악이 생활 속에 밀착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최근 학교 교정이나 대형 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는 이른바 대규모 음악회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찬반 양론을 펴고 있다. 먼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무엇보다 학문을 하는 신성한 곳이므로 학술과 학문이 주가 되어야 하고, 그 밖의 행사는 그것을 보완해 주는 의미로서 종의 위치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 대학들이 본업이 되어야 하는 학술모임이나 발표회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하나인 음악회를 경쟁적으로 성대하게 치르고 있으니 이러다가는 한국의 지성이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대학이란 본질적으로 교육이나 학문을 위한 방법으로서가 아니라면 집단적 개념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학인은 원래 고독한 개체이며, 취미나 휴식은 혼자서 하는 것이지 수천 명이 떼지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음악회를 한 번 여는 데는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돈이 드는데, 많은 대학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이 없다고 궁색한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경비를 지출해 가며 대중가수의 노래나 듣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이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어찌 보면 너무도 지당한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를 바꿔서 한 번 생각해 보자. 문화는 일반적으로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한다. 음악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우리의 음악도 변화해 왔다.

비통과 율분, 사랑과 한을 담은 흘러간 가요에서부터 '60년대 말과 '70년대를 풍미했던 통기타 문화를 거쳐 로큰롤과 하드록에 이어 오늘날에 유행하는 랩과 힙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에 이르기까지 음악은 그 시대의 거의 모든 문화들을 반영하고 있다.

자연적인 소리에서부터 과학의 힘에 편승한 합성 음악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이나, 베토벤 교향곡 제5번이 토막으로 잘려서 경쾌한 팝의 선율로 탈바꿈되어 이런 저런 제품의 선전용 음악으로까지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음악적 변화를 단계별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음악회는 사실상 개최나 제작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를 실현시킨 것이 바로 '열린 음악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열린 음악회가 지닌 장점을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앞서서도 언급한 대로 열린 음악회의 최대의 장점은 모든 음악 장르를 한 그릇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형무대에는 흘러간 가요와 팝송, 상송이 공존하고, 최신 가요와 우리의 국악이 번갈아 나오며, 기라성 같은 성악가들이 오페라의 아리아와 우리 가곡을 부르는가 하면, 세계적인 연주가들이 아름다운 선율로 청중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한 무대에서 같은 청중을 놓고 모든 음악의 장르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음악회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이다.

둘째, 사람에 따라 입맛이 다르듯, 개성에 따라 특히 나이에 따라 즐겨 듣는 음악이 다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열린 음악회처럼 다양한 신분과 연령층을 가진 청중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음악회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수나 성악가의 열창을 듣고 흥에 겨워 수천, 수만의 청중이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한 열린 음악회 청중 사이에는 종종 외국인들도 자리를 함께 하여 즐기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이러한 장면을 볼 때마다, 음악이야말로 지구촌에서 모든 인류가 국경을 뛰어넘어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공통언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셋째, 열린 음악회는 우리에게 대형 음악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커다란 감동을 준다. 때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청중을 감동시키는 것이 음악이다. 그런데, 우리네 보통 사람들에게는 웬지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인 '음악회'에 대한 우리의 정서다. 그러나 열린 음악회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거나, 방송을 통해 보고 즐기는 데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 교정에서 열렸던 이 음악회에 직접 참석했던 나 자신이 받은 감동의 크기는 대단한 것이었다. 먼저 거대하면서도 아름다운 무대 세트와 그 무대를 비추는 조명 또한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환상적인 느낌이 들었다. 또한 음향효과도 엄청났다. 이전까지 대형 집회나 음악회장의 음향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했던 나로서는 참으로 놀랄만한 소리였다. 더구나 그런 큰 소리가 결코 듣는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소리가 아니고, 저음과 중음, 고음이 절묘하게 어우러

진 생동감 넘치는 소리라는 점이 놀라웠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감동을 느낀 것은 바로 환호하던 청중들의 모습이었다. 2만 명이 넘는 청중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일사불란하게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며 앵콜을 외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은 그 청중 속의 한 사람인 나 자신에게도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특히 그 날 음악회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흥에 겨운 청중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합창을 하는 모습을 보며 열린 음악회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열린 음악의 의미를 깨닫는가도 싶었다.

### 3

한편, 이러한 열린 음악회가 대학 캠퍼스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열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더욱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

먼저 열린 음악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의 낭만을 느끼게 해주며, 아울러 대학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지만 대학은 자유로운 사색과 낭만, 가장 아름다운 꿈을 키우는 미래의 주역들이 생활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이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대학교 교정에서 개최되는 열린 음악회를 보면 지역의 기관장과 유지는 물론이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대학 총장 이하 전 교직원과 많은 학생·동문들과 함께 박수치고, 손을 흔들면서 출연자들의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부르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열린 음악회는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만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 속

에 젖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의 실제 모습을 알리고 사랑하며, 대학과 시민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도 하루가 다르게 자기혁신을 도모하면서 이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해야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데, 이런 대형 음악회를 대학 내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 창달에 대학이 기여하는 기회도 될 뿐 아니라 많은 청중들과 TV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학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열린 음악회를 통해서 대학 구성원 간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사실 열린 음악회를 유치한 대학에서는 최소 1개월 전부터 이 행사를 치러 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귀빈들을 초청하는 일에서부터 청중 동원 문제, 주차 문제, 수많은 잡상인들의 통제 문제, 학교 환경 미화 문제, 출연진 섭외 문제, 무대 설치팀과 조명팀·음향팀·출연진에 대한 식사 문제, 대규모 청중을 위한 화장실 대책, 쓰레기 수거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거론되는 것은 모두 다 문제 아닌 것이 없을 정도다. 이러다 보니, 음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거의 모든 부서가 관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 간에 단합과 협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열린 음악회는 유치와 준비, 공연 과정에서 학교 당국과 교직원, 학생, 그리고 동문들이 총망라되어 긴밀한 협조와 유대를 통해 성공적인 개최를 다져 나갈 때만이 치러낼 수 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공동운명체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화합이 싹트고 성황리에 음악회를 무사히 마칠 때 대화합은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거쳐 성공적인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모든 구성원들은 힘을 합쳐 무사히 큰 행사를 치러 냈다는 자부심과 함께, 향후 어떠한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야말로 열린 음악회를 통해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얻어낸 가장 값진 수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

이선희/경기대 대학원 관광경영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동아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를 지냈다. 현재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이며 기획처장과 한국여행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여행업 경영개론』, 『관광 마케팅개론』 등이 있고, "한국 호텔 기업의 서비스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